

# KDI

## 정책포럼

KDI정책포럼 제281호(2020-06)  
(2020. 12. 24)

내용문의 김미루 044-550-4010    오윤해 044-550-4073  
자료문의 홍보팀 044-550-4030

KDI 정책포럼은 주요 경제현안 및 정부정책에 대한 견해를 분석적으로  
정리·제시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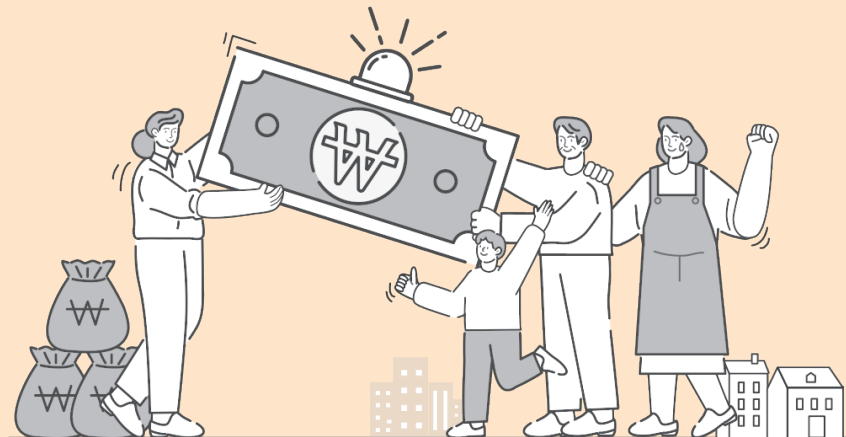
본 정책포럼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

##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김미루 KDI 연구위원(mrkim@kdi.re.kr)

오윤해 KDI 연구위원(ohyh@kdi.re.kr)



# 요약

-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소비가 5월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남.
-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됨.
  - 매출감소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하였으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음.
- 과거 소득분위 등의 간접적인 기준보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추어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
  -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했던 지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도 저소득 가구가 전년 수준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었음.
-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함으로써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 1

###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경

- 지난 5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계소비를 진작하고, 피해 사업체의 매출 증진을 도모한 바 있음.
  - 정부는 전 국민에게 총 14.2조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용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민간소비 부진을 완화하고 피해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려는 정책목표를 추구
    - 정책결정 당시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선별에 따른 시간 지체와 형평성 등의 논란이 제기됨.
  -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추가 지급됨.
    - 대구 등 많은 광역단체에서 중위소득계층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1인당 일정 금액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함.

## 2

###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매출 증대 효과 분석

- 본고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가구의 소비 증감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이 사업체 업종별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월별 카드소비 자료로 업종별 매출과 가구특성별 소비를 분석함.
    - 현금소비 정보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고 카드사의 소득 추정액을 이용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나, 현재 가용한 최선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본 절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업종별 및 전체 매출액 증대 효과를 분석함.
- 전체 카드매출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던 시기에 급감하였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에는 전년 동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됨.

- 전체 카드매출 증감률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한 8주 차에 전년 동기 대비 -11.9% 까지 감소하였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인 23주 차에 전년 동기 대비 13.9%로 증가한 후 다소 하락함.
- (준)내구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
  - 의류/잡화(-17.8% → 11.2%), 가구(-3.5% → 19.9%)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여행, 사우나 업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지속된 반면, 코로나19 발생에도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던 필수재 매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더 크게 증가**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16~18주)과 지급 후(20~25주) 기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의 평균을 비교
- 대면접촉이 요구되는 여행, 사우나 업종에서 코로나19 확산 직후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전년 동기의 매출 수준을 크게 하회함.
  - 여행(-61.1% → -55.6%), 사우나/찜질방/목욕탕(-26.3% → -20.9%)
- 반면, 식료품과 편의점 등 필수 소비재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도 전년 동기보다 더 높은 매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이 더욱 크게 증가함.
  - 식료품(2.5% → 12.3%), 편의점(0.8% → 5.6%)

그림 1. 확진자 수와 카드매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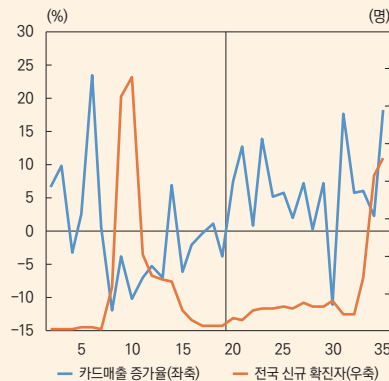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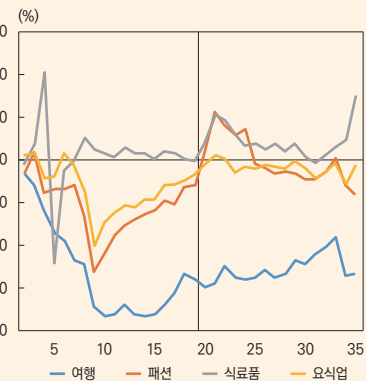


그림 2.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



주: x축의 숫자는 1월 첫째 주부터 순서대로 계산된 주의 차수를 의미함.  
자료: BC/신한/국민/농협/롯데/삼성/현대/하나의 8개 카드사 합산 자료.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카드매출액 증대 효과를 엄밀히 추정하기 위해, 합성대조방법으로 대조군을 설정한 후 이중차분분석을 시행함.**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인 19~33주의 매출액 변화 중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의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대조군을 설정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화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이연소비가 발생하였을 수 있으며, 금리 및 자산 가격 등 거시경제 여건의 변동이 카드매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 긴급재난지원금만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대조군과의 비교가 요구됨.
- 합성대조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매출액 추이를 추정함.
  - 합성대조방법(Abadie *et al.*, 2010)의 대조군 후보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불가업종들의 시군구별, 주별 매출액 추이를 사용함.
  - 2월 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까지 해당 업종의 매출액 증감률 추이와, 전 기간 지역별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추이가 유사한 합성대조군을 설정함.

- 따라서 합성대조군의 매출액 증감률 추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는 유사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매출액 증감률 추이로 해석할 수 있음.

■ 전국 카드매출 총액 분석 결과, 사용가능업종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하여 증가한 카드매출액은 4.0조원이며, 이는 투입재원 대비 약 26.2~36.1%임(한국개발연구원, 2020. 11).

○ 본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1.1~15.3조원임.

- 카드매출액의 증감에는 중앙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광역 및 기초 단체별 추가 지원금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중 신용·체크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총액을 11.1~15.3조원으로 계산함.
- 지원금 총액은 포괄방식에 따라 14.2~19.9조원으로 계산되지만, 본 분석에서 상품권·선불카드 지원에 따른 매출 변화는 파악하지 못하여 해당 방식으로 지원된 금액을 제외함.
- 현금 지원금 총액 중 69.1%가 신용·체크카드 매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투입재원 계산에 반영함.

\* 2019년 지급결제액 중 69.1%가 카드소비임(한국은행, 2020).

○ 이러한 소비 증대 효과는 해외 선행연구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임.

- 2009년에 지급된 대만 소비쿠폰의 소비 증대 효과는 동 시기에 실시된 할인행사의 영향을 포함해 24.3%로 나타남(Kan *et al.*, 2017).
- 2001년 미국의 세금감면을 통한 소득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한계소비성향이 20~40%로 추정됨(Johnson *et al.*,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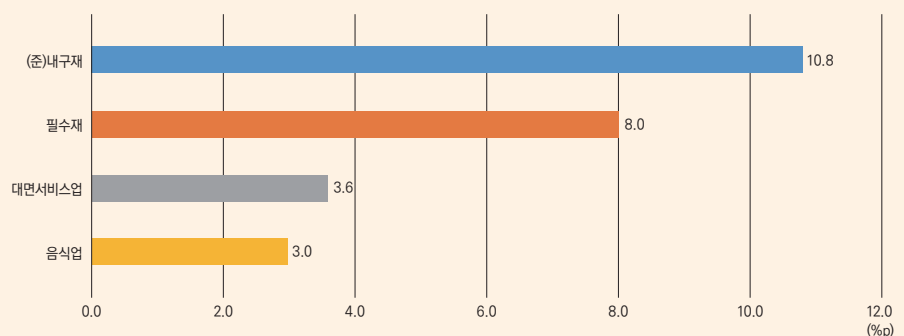
■ 업종별 분석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는 대면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준)내구재와 필수재에서 컸으나, 코로나19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음.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는 (준)내구재(10.8%p), 필수재(8.0%p), 대면서비스업(3.6%p), 음식업(3.0%p)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16~18주)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는 대면서비스업(-16.1%), 내구재(-12.7%), 음식업(-10.1%), 필수재(2.1%)의 순

○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대면서비스 소비를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증대 효과



주: 1) (준)내구재의 매출액 증대 효과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2) 필수재는 마트/슈퍼마켓/생협/식료품, 편의점등, (준)내구재는 가구, 서점, 문구, 안경, 의류/잡화류, 음식업은 한식/일식/중식/양식/기타요리, 패스트푸드, 베이커리/커피를, 대면서비스업은 레저, 이미지, 사우나/목욕탕/찜질방을 포함하였음.

자료: BC/신한/국민/농협/롯데/삼성/현대/하나의 8개 카드사 합산 자료를 통해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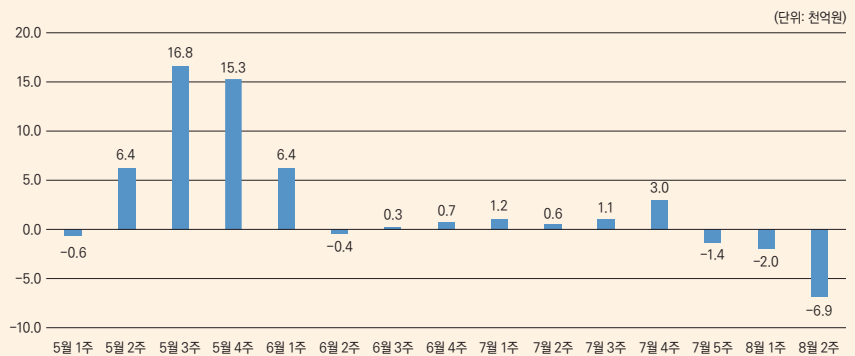
■ 매출 증대 효과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한 달 간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이후에는 효과가 작아짐.

- 13.1%의 취약계층 가구에 현금이 지급된 5월 1주에는 효과가 미미하였음.
  - 많은 가구가 5월 2주부터 신용·체크카드 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5월 1주의 소비를 이후로 이연시켰을 가능성도 있음.
- 매출 증대 효과가 6월 말과 7월에 다시 증가하는 것은 해당 시기에 지급된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8월 초에 나타난 매출 감소 효과는 가계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5월)에 사용가능 업종의 소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미래(8월)에 예정된 소비계획을 미리 집행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됨.

■ 본 분석 결과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

- 카드매출액에 대한 효과와 GDP(부가가치 기준)에 대한 효과는 다름.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가계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사업체 소득 증가 → 내수 증가 → ...'로 이어지는 승수효과가 분석기간에 모두 발현되지 못하여 매출 증대 효과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로 인해 대조군인 사용불가업종에서도 소비가 증가하였을 경우, 사용가능업종에서의 매출 증대 효과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
- 한편, 사용불가업종의 소비가 사용가능업종의 소비로 대체되었을 경우, 매출 증대 효과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

그림 4. 긴급재난지원금의 시기별 매출 증대 효과



자료: BC/신한/국민/농협/롯데/삼성/현대/하나의 8개 카드사 합산 자료를 통해 저자 계산.

■ 본 절에서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의 가계소비 변동을 살펴보기 위해 카드소비를 지역·소득분위별, 연체경험 유무별로 비교함.

- KCB 월별 전체 카드사용액 자료와 신한카드 가구특성 정보를 결합하여, 신한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 203.8만 표본의 소득분위별 전년 동월 대비 카드소비 증감액을 파악함.
  - 취약계층인 현금수급 가구(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기초연금 수급자 등)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음에 유의할 필요
  - 자택주소를 기준으로 가구원을 파악하고, 신한카드사 추정소득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가계동향조사 소득분위 구분과 차이가 있음.
- 소득분위별 분석에서는 정확한 가구 구성 정보 및 아동돌봄쿠폰 수령 정보의 부족에 따른 오류를 피하기 위해 1인가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다인가구를 분석하여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됨(부도 1 참고).

■ **코로나19 확산 직후 고소득 가구일수록 전년 동월 대비 카드소비를 크게 줄여 감염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필수재 소비 비중이 높은 1·2분위 저소득 가구의 카드소비는 감소폭이 작음.**

- 전국 1인가구의 4월 전년 동월 대비 카드소비는 5분위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며(-40.6만원), 고소득 가구의 소비 감소는 외식, 여행 등 조정 가능하며 대면접촉이 요구되는 품목에서 주로 나타남.
  -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2020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오락·문화 관련 소비의 (가중)평균 증감액은 5분위(-8.3만원), 2분위(-1.1만원), 1분위(-0.2만원) 순으로 나타나 고소득 가구에서 크게 감소함.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가계의 카드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함.**

- 5월에는 저소득 가구(1·2분위)에서, 6월에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전년 동월 대비 카드소비가 증가함.
  - 6월 전국 1인가구 중 1분위(30.3만원)와 2분위(18.8만원) 가구의 카드소비 증가액은 3분위(16.9만원)와 4분위(11.2만원) 가구에 비해 더 큼.
- 6월 5분위 가구의 급격한 소비 증가(22.2만원)는 7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폭 축소로 인한 6월 자동차 구입 급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
  -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상, 2020년 6월 전년 동월 대비 (가중)평균 신차구입비용의 변화는 소득 3분위와 소득 5분위 가구에서 각각 2만원, 21만원으로 나타나 고소득 가구의 신차구입이 크게 증가함.

■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했던 지역에서는 3~4월 소비 충격이 작게 나타나고 저소득 가구의 소비가 전년 수준을 유지한바, 과거 소득 수준으로 코로나19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움.**

- 충북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4~7월 중 비교적 낮게 유지되어 코로나19 확산 수준에 따른 가계소비 변화를 비교해 볼 수 있음.
  - 인구(십만명) 대비 신규 확진자 비율은 전국(3월 10.7, 4월 1.9, 5월 1.4, 6월 2.5)에 비해 충북지역(3월 2.1, 4월 0.06, 5월 0.9, 6월 0.3)에서 더 낮고 안정적인.
- 3, 4월 충북지역의 1·2분위 가구가 전년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였음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했던 지역에서는 모든 저소득층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님을 유추할 수 있음.
- 충북지역 3·4분위 가구의 소비 감소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더 작았으며, 5분위 가구의 소비 감소도 3월보다 4월에 완화되었음.

■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한 지역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카드소비가 전국 평균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소득지원 정책의 소비진작 효과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일 때 충분히 발현됨을 시사함.**

- 충북지역 1인가구의 5월 전년 동월 대비 소비 증가 수준은 지자체 지원금이 반영된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더 높았음.
  - 충북지역에는 저소득층 등에 추가로 지급된 지자체 지원금이 없었음.
  - 반면, 집중 피해지역인 대구에서는 4분위 가구의 소비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에도 전년 동월 수준을 크게 하회하였음(부도 2 참고).
- 전년 동월 대비 소비 증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5월 증감-4월 증감) 차이는 1분위(35.9만원) 가구에서 가장 크나, 소득분위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음.
  - 2분위(20.9만원), 3분위(22.9만원), 4분위(26.9만원), 5분위(21.6만원)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동소득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을 비교할 수 없었음에 유의할 필요

그림 5. 전국 1인가구 카드소비 증감액

(단위: 전년 동월 대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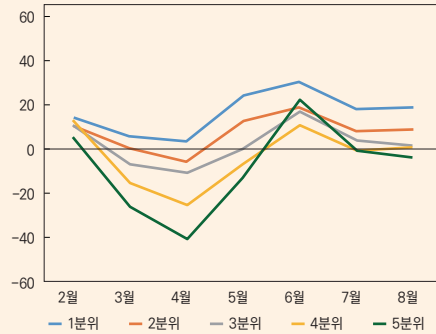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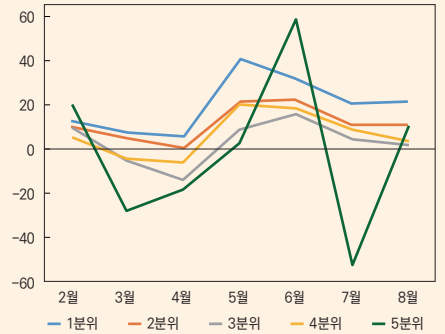


그림 6. 총복지역 1인가구 카드소비 증감액

(단위: 전년 동월 대비, 만원)



주: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4인 이하의 카드 소지자를 동일 가구로 분류하여 3월 시점의 (신한카드사 추정)소득을 가구별로 합산한 후 소득분위를 구분하였음. 소득 1분위는 2,700만원 이하, 2분위는 2,700~3,400만원 이하, 3분위는 3,400~4,500만원 이하, 4분위는 4,500~6,600만원 이하, 5분위는 6,600만원~1.5억원을 나타냄. 전국과 총복의 1인가구 표본 수는 각각 68.5천, 2.6천 가구임.

자료: 신한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 표본의 KCB 월별 전체 카드소비 정보.

■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 부족으로 생활 곤란을 겪은 가구의 소비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2~4월 중 카드 및 대출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를 구분함.

-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직 및 사업체 매출 감소를 경험한 가구가 소득감소로 인해 생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됨.
- 월별 소득 변화에 대한 정보 구득이 불가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직후 연체 경험이 발생한 가구를 생활 곤란을 겪은 가구로 구분함.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전(2~4월)에 카드대금 및 대출금의 1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가구가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비교
  - 2019년 1월~2020년 1월의 기간 동안 연체 경험이 없는 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에 기존의 장기 연체자는 제외됨.

■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체 경험 가구의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감소폭이 크게 완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소비가 제약됨.

- 연체 경험 가구의 3~4월 평균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92.9만원)하여 이들이 생활 곤란을 겪었음을 알 수 있음.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연체 경험 가구의 5~8월 평균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49.3만원 감소하여 감소폭이 크게 축소(44.6만원)되었음에도 여전히 전년 수준의 소비를 회복하지 못하였음.
- 한편, 연체 무경험 가구의 경우 3~4월과 5~8월 평균 소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이 각각 -20.4만원, 13.7만원으로, 그 차이(34.1만원)가 연체 경험 가구에 비해 작고, 코로나19 발생 직후 소비 감소도 크지 않음.

표 1. 가구원의 연체 경험 유무별 전년 동기 대비 카드소비 증감액

(단위: 전년 동기 대비, 만원)

분류	3~4월 평균(A)	5~8월 평균(B)	차이(B-A)
2~4월 연체 경험 가구	-92.9	-49.3	44.6
2~4월 연체 무경험 가구	-20.4	13.7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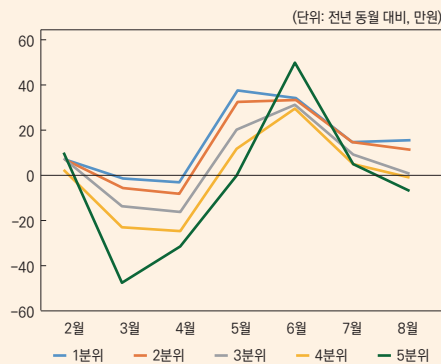
주: 2019년 1월~2020년 1월의 기간 동안 연체 경험이 없는 가구만을 표본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연체 여부는 가구 구성원 중 2020년 2~4월 신용카드 대금 혹은 대출금 납부에서 1일 이상의 연체 발생 경험이 있을 경우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음(전체 203.8만가구 중 연체 경험 가구 26.3만가구).

자료: 신한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가구 표본의 KCB 월별 전체 카드소비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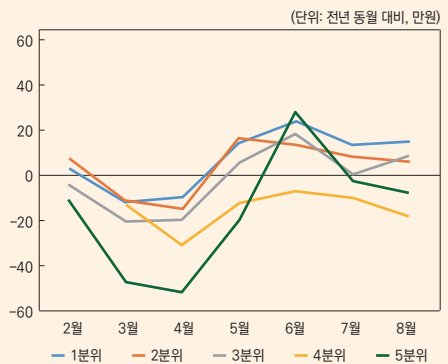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소비가 5월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남.
-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됨.
  -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하였으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음.
  -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등에게 지급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한계를 일부 보완했을 것으로 판단됨.
- 외식, 여행 관련 소비금액이 큰 고소득 가구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크게 감소하고 확산이 억제되면 감소폭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바, 철저한 방역이 소비진작의 전제 조건임을 시사함.
- 과거 소득분위 등의 간접적인 기준보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추어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
  -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했던 지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도 저소득 가구가 전년 수준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었음.
-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함으로써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부도 1. 전국 다인가구(인당) 카드소비 증감



부도 2. 대구지역 1인가구 카드소비 증감



주: 1)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4인 이하의 카드 소지자를 동일 가구로 분류하여 3월 시점의 (신한카드사 추정)소득을 가구별로 합산한 후 소득분위를 구분하였음.  
 2) 전년 동기 대비 1인당 카드소비 증감액의 소득분위별 변화 추이는 전국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유사하게 나타남.  
 3) 집중 피해지역인 대구에서 3, 4월 고소득 5분위 가구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 감소폭이 매우 컸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4분위 가구의 소비가 전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자료: 신한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 표본의 KCB 월별 전체 카드소비 정보.

## 참고문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년, 2020년 1분기.
- 한국개발연구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II」, 행정안전부 용역보고서, 2020. 11.
- 한국은행,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2020.
- Abadie, Alberto, Alexis Diamond, and Jens Hainmueller, "Synthetic Control Methods for Comparative Case Studies: Estimating the Effect of California's Tobacco Control Program,"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05(490), 2010, pp.493~505.
- Johnson, David S., Jonathan A. Parker, and Nicholas S. Souleles, "Household Expenditure and the Income Tax Rebates of 2001," *American Economic Review*, 96(5), 2006, pp.1589~1610.
- Kan, Kamhon, Shin-Kun Peng, and Ping Wang, "Understanding Consumption Behavior: Evidence from Consumers' Reaction to Shopping Voucher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9(1), 2017, pp.137~153.
- BC/신한/국민/농협/롯데/삼성/현대/하나 8개 카드사 합산 자료.
- 신한카드-KCB 카드소비 결합 정보.